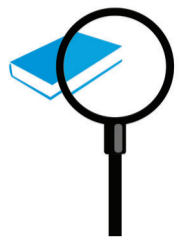


육신의 눈·이성의 눈·깨달음의 눈... 인간은 '뇌를 넘어서 본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눈 뇌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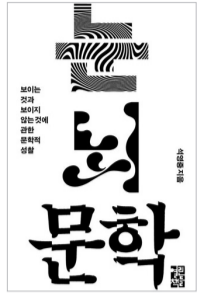
석영중 지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국 문학에 내리는 '축복'이었다. 우리나라 작가로는 처음,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처음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한강 작가에게는 큰 영예이지만 한국문학 차원에서 서도 크나큰 경사였다.

무엇보다 한국문학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한국문학이 변방에서 중심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K문학의 가능성을 입증한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스웨덴 한림원으로 대변되는 서방세계가 우리 문학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본다는 것,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인간의 눈은 무척이나 신비롭다.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사유한다. 인간에게 본다는 행위는 많은 분야가 결부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단순한 자연과학, 신경 과학을 넘어 심미적인 부분인 문학, 미학 등도 결부된다.

본다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빛을 감지해 뇌



에 전달하고, 시각 이미지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아우른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보는 것을 토대로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기도 한다.

시각과 인지, 예술에 관한 책 '눈 뇌 문학'은 다채로운 영역을 넘나든다. 책의 외견도 두꺼운데 내용도 방대하다. 전 고대대 노어노 문학과 석영중 교수가 쓴 '눈 뇌 문학'은 과학과 인문학을 중형무진 가로지르며 깊이와 재미를 선사한다. 저자는 한국 러시아문학 및 한국 슬라브 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러시아 문학 연구에 매진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뇌로 본다'라는 사실을 넘어 '뇌를 넘어서 본다'고 강조한다. 인간은 너무 작거나 커서 혹은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무수한 도구를 발명했으며 '내면의 눈'으로 초월적인 무언가를 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 지성사에 새겨진 시각에 관한 논의를 살살이 살핀다. 알려진 고전은 물론 문학사적 중요성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텍스트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성경부터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푸시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디킨스, 제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가 다뤄진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미술 평론 '예술 아카데미 전시회에 부쳐'에서 예술가는 '몸의 눈'을 넘어 '정신의 눈' 나아가 '영혼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프란체스코회 소속 사제인 로어는 지는 해를 바라보는 눈을 중심으로 인간의 시선을 분류한다.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제1의 눈과 상상, 직관, 이성을 통해 광경을 바라보는 제2의 눈 그리고 근원적인 신비에 대해 경이심을 느끼는 제3의 눈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각각 육신의 눈, 이성의 눈, 잠된 깨달음의 눈이다.

눈은 창조하고 감상하는 기관이다. 문학 작품에는 그림을 비롯해 조각, 사진 등 시각 예술 작품을 언급한 내용이 많다. 작품에 관한 언급은 그것이 해설 또는 평론이든 전체의 미와 직결된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에크프라시스'라 일컫는데 이것의 고전적 관의는 '시각적 재현에 관한 언어적 재현'이다. 물론 '에크프라시스'는 문학 비평 뿐 아니라 미술사와 미학과 문화사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안젤로 몬테첼리 '아킬레우스의 방패' (1820년경)



알렉산드르 이바노프 '그리스도께서 민중 앞에 나타나심' (1857)

맺는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묘사한 아킬레우스의 방패는 가장 오래된 에크프라시스의 사례다. 저자는 '도스토예프스키에서 톨스토이, 고골, 오스카 와일드, 버지니아 울프, 에드거 앨런 포, 토마스 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설가들이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혹은 미학적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에크프라시스를 도입했다'고 언급한다.

특히 마지막 장 '신의 눈을 훔쳐 내는 시선'은 문학 대가들이 상상한 신의 눈에 초점을 맞춘다. '악령'과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에서는 보편적인 참회와 구원의 논술, '전쟁과 평화'와 '이반일리치의 죽음'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응시 등의 형태로 작품에 투영돼 있다.

〈열린책들·4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4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

조경란 외 지음

김승옥문학상은 1960년대 탁월한 감수성을 토대로 새 지평을 연 김승옥의 문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신진 작가를 발굴해 한국문학을 풍요롭게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가을마다 알찬 수확을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한 해 한국문학의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의 영예는 조경란 작가의 '그들'에 돌아갔다. 이와 맞물려 조경란 작가의 대상 작품을 비롯해 우수작 6편이 수록된 '2024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발간됐다. 조경란 작품 외에도 안보윤, 조해진, 강태식, 반수연, 신용욱, 이승은 등의 일곱 가지 다채롭고 견고한 문체로 그린 소설을 만날 수 있다.

심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7개 문예지에 발표된 165편의 소설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조경란의 '그들'은 "그 자체로 우리 시대의 삶에 대한 진실한 표현"이라는 심사평과 아울러 대상에 선정됐다.

조경란은 지난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불란서안정원'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문학동네작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 '그들'은 위기에 내몰린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울증을 앓아 홀로 돌 수 없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종소, 그리고 일상의 불안에서 언제든 벗어나기 위해 매일 예코백에 단출한 짐을 챙기는 영주가 등장한다. 종소는 자신을 교수 임용 과정에서 배제한 최 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내 영주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간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쓰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정희정·김현정 외 지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때 유행어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문장이 있었다. 그 어떤 그럴싸한 계획이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위험한 행동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한다면 '실행'을 하라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쓰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글쓰기를 시작한 일곱 작가들의 도전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글쓰기를 실행해 옮긴 사람들'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다.

경기 김포에서 최고그림책방&최고북스를 운영하는 현직 작가 정희정, 이야기를 좋아하는 김현정, 글쓰기를 통해 일상을 적어내는 평범한 엄마 노은심, 새내기 작가 김누리, 18년 직장생활을 접고 브런치 작가가 된 김희정, 26년간 광고디자이너 문현주, 두 아이를 키우며 뒤늦은 사춘기를 흑독하게 지내고 있는 송나영까지. 7명의 작가들은 글을 쓰면서 나를 발견하고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우연히 책방에 들렀다가 글쓰기를 배우고, 아이의 독서지도를 위해 독서 모임에 참가하고,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 함께 글쓰기를 시작한 이들은 '나만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고 싶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여진 글은 나만의 원고라 되어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나의 마음을 따라 용기를 낸 것이다. 내가 낸 작은 용기가 그림책방과 나를 연결해 주었고 그렇게 나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의 큰 변화이다... 나의 작은 용기 하나에 글쓰기가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김현정)

〈최고북스·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실학, 우리 안의 오랜 근대

이경구 지음

실학의 '실(實)'이 지닌 보편성과 개별성은, 조선이라는 유일무이 국가와 결합하면서 사상적 토대의 한 축을 형성했다. 오래 지속돼 온 유교나 성리학에 투명한 실학은 시대적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민중의 학문이었다.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실학을 언급하거나 연구한 사람들, 해양 후 한국에서 실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등 우리나라 실학사를 조망하는 책이 나왔다. '실학, 우리 안의 오랜 근대'는 실학이란 용어와 개념, 실학의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림대 한림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 이경구는 '조선 후기 안동김문 연구',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정조와 18세기' 등 책을 펴내며 조선시대 전문 연구자로 활동해 왔다.

"실학과 실학자는 동양의 역사와 지식 세계에서 기원했고 지속했다. 실학의 정의로 소개되는 실사구시, 이용후생이나 실학과 연동했던 개물성무(開物成務) 등은 동양의 고전, 경전에서 기원했다. (-) 실학을 살필 때 우리는 서양 근대를 접할 때 느끼는 원천적인 '허기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실학의 대표 격 표어인 이용후생부터 실사구시, 경제치용 등이 어떻게 실학에서 실현되고 관련을 맺어 왔는지 알려준다. 비교적 덜 알려진 개물성무 등의 경구 또한 실질, 실용을 강조함을 주지하면서 중세-근대에 겪어온 실학의 의미 변화와 외연 확장을 살핀다.

책은 실학에 대한 오용, 문헌에서 실학에 대해 언급한 공기어(共起語)를 분석하고 거시적 추이를 개괄한다. 나아가 실학 관련 논쟁과 용어 사용의 격론, 근대 실학이 어떻게 주류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언급한다.

〈푸른역사·2만79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0월호

2024년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2024년 9월호 표지 이미지

특집
《예향》 창간 40주년
독자와 나는 즐겁고 진지한 대화

- 매달 설렜던 만남, 《예향》 인터뷰
- 변화의 길목마다 함께, 《예향》 기획
-남도 작가들의 발표 무대, 《예향》 표지

한국학중앙연구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⑦
육자매기 가락이 너울대는 남농 허건의 산수화
호남의 누정 ⑥-광주 호가정 푸른 연산강물에 흐르는 선비의 노래

멋과 맛 함께
반찬이 있는
장흥 여행

우드랜드
역세물결
천년학길

회화의 예술인
신안군 예술 섬 프로젝트 참가한 '영국 국민 조각가', 안토니 곰리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①
팔순의 퍼포머, 성능경 뉴욕 구겐하임도 주목했다

오동진의 '전자적 시네마 시점' 영화관 티켓 1만5000원 시대, 이게 다 비싼 배우 몸값 때문?

예향 초대석
마음에 등불 밝혀주는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경청하면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시월의 어느 멋진 날 페스티벌 전담

기획
30주년 맞는 광주비엔날레

회보로 만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핵심주제 '인류세'로 보는 작품 9선
작지만 색깔 있는 파빌리온 & 병행 전시